

신세계 특급호텔 연내 허가 불투명

광주시 지구단위계획 보완 요청에 사측 연장 신청

지역사회 분위기 등 감안 무리한 추진 안할 듯

광주신세계의 특급호텔 복합시설 건립 사업 추진 여부가 올 말이나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복합시설 건립 및 현 백화점 리모델링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은 광주시가 지난 3월 내용 보완을 요청한 뒤 별다른 진척이 없는 실정이다.

4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신세계측이 올 초 제출한 특급호텔 복합시설 지구단위 계획과 관련 지난 3월 주차장 추가 확보, 지하차도 건립 등 교통영향평가, 출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와의 협의, 호텔 규모 산정 등의 보완을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광주신세계측은 보완 기한이 다가오자 같은 달 기한 명시 없이 연장을 신청해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

시는 이와 관련 복합시설 및 현 백화점 리모델링 지구단위계획의 사업기간이 2017년부터 2022년까지로 명시돼 있어 올 하반기에 사업 지속 여부를 논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광주신세계가 시의 보완 요청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아 답답한 상태”라며 “사업 기간 등을 감안

할 때 하반기에는 보완 요청을 수용할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광주신세계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유력 후보들이 잇따라 광주 특급호텔 건립에 부정적 의견을 나타내자 건립 자체에 부담을 느껴 지구단위계획 보완 연장을 광주시 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최근 광주신세계 한 관계자는 “현재 정치, 지역사회 분위기대로라면 복합시설 연 말 허가가 어렵지 않겠느냐”며 부정적인 의견을 밝혀 특급호텔 건립 여부 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는 분위기다.

내년에 광주시장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지역 일부 소상공인이 반대하고 있는 특급호텔 건립은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광주신세계는 올 초 인근 이마트와 모델하우스 부지 등에 연면적 2만9100여㎡(8800여평) 규모의 특급호텔과 11만 6200여㎡(3만5200여평)의 백화점을 포함한 14만5000여㎡(4만4000여평) 규모의 복합시설을 건립하겠다는 지구단위계획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다.

이 복합시설은 지하 2층~지상 6층의 백화점, 지상 7~19층 특급호텔, 컨벤션 홀, 피트니스 등 다양한 휴게공간 등으로 꾸며진다.

새로 건립되는 이마트와 백화점, 특급호텔 사이에는 지하-지상 브리지를 연결해 기존 백화점 건물과 더불어 하나의 단지처럼 만들 계획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윤장현 시장, 광주시상인연합회 감사패 받아

윤장현 광주시장이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광주시상인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

광주시상인연합회(회장 임승우)는 5일 열리는 ‘제2회 빛고을 상인의 날 대축제’를 앞두고 4일 광주시청을 찾아 윤 시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임승우 회장은 “최근 말바우협동조합에 청년 2명이 들어오는 등 청년들이 참여하면서 시장이 활

기를 얻고 있다”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경쟁력 있는 롤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까지 보이고 있어 미래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윤 시장은 민선 6기 들어 전통시장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맥박’ 같은 존재라고 보고 총 45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노후 전선과 구조물 개선·보수 등 맞춤형 사업 지원을 하고 있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빛가람페스티벌 개막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상생 한마당인 ‘제3회 빛가람페스티벌’ 개막식이 4일 오후 나주 빛가람혁신도시 호수공원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혁신도시 착공 10주년과 공공기관 이전 3주년을 맞아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과 가족, 시·도민이 함께하는 상생·화합의 축제로 진행된다.

<전남도제공>

광주도시철도공사 창립 첫 여성간부 나왔다

문희주 건축팀장

김진희 상무운전역장

광주도시철도공사가 2002년 창립 이래 최초의 여성간부들을 배출했다. 15년 만에 여성 팀장과 역장이 나왔다.

4일 광주도시철도공사는 문희주(47) 건축팀장과 김진희(36) 상무-운전역장을 최근 각각 임명했다. 공사 측은 공공기관의 여성 임원 확대 등 사회적 변화를 반영, 여성인재 육성과 경력 지원에 앞장서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자평했다.

문 팀장은 전남도의 건축 업무 등을 거쳐 공사에 입사한 후 개통 멤버로 활약, 건축 분야에서의 다양한 성과로 전문성을 인정받았다. 김 역장은 지난 2003년 공채 1기로 입사한 이래 역무, 영

업 분야 등을 두루 거치는 등 풍부한 현장경험으로 역장으로서의 역량을 쌓았다.

문 팀장은 “공사의 만민으로서 후배들을 위한 길을 열게 돼 보람있게 생각한다”면서 “여성으로서의 한계에 좌절하기보다는 여성이기에 갖는 장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 역장은 “출산과 육아 등 여성 직장이 넘어야 할 산이 있었지만, 공사의 배려로 큰 어려움 없이 경력을 쌓아갈 수 있었다”며 “공사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공사는 최근 2호선 운영 대비 및 책임경영 강화를 위해 3분부 5차 4일 22명의 조직개편을 단행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전남도 기간제 근로자 350명 정규직화

심의위 열어 433명 중 80.8% 대상자 최종 확정

전남도가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350명을 정규직화하기로 했다.

4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를 열고 기간제 근로자 433명 가운데 80.8%인 350명을 정규직 전환 대상으로 최종 확정했다.

전환 대상자는 분야별로 연구보조 240명, 사무보조 35명, 산립보조 28명 등이다.

기관별로는 도 본청 13명, 농업기술원 209명, 해양수산과학원 35명, 동물위생시험소 29명 등이다. 60세 이상, 일시 근로자, 휴직 대체자 등 83명은 제외됐다.

도는 연말까지 공공기관 정규직 채용절차를 마무리하고 2단계로 내년부터는 계약 기간이 끝나는 용역,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60세까지 정년 연장되고, 호봉제가 적용된다.

전남도는 지난 7월 20일 의결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에 따라 정규직 전환 기본 계획을 확정하고 기간제 근로자 일제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도의원, 노사 전문가, 변호사, 사회단체 대표, 일자리 관련 부서장 등 9명으로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도 구성했다. 심의위는 기간제 근로자들의 의견 수렴

을 거친 뒤 지난달 23일부터 8일간 개별평가에서 지속성, 휴직 대체 등 업무특성과 60세 이상 고령자 등 인적 속성이 반영된 10개 항목을 심사했다.

1차 개별평가를 바탕으로 지난 1일 정규직 전환 심의위원회 2차 전체회의를 열어 평가 결과를 종합하고 합동 검토를 거쳐 정규직 전환 대상자를 확정했다.

심의위원장은 고재영 전남도 자치행정 국장은 “정규직 전환 대상자 확정은 정부 핵심정책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의 결실”이라며 “비정규직이 매년 계약서를 써야 하는 고용불안을 덜고 마음껏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모터스포츠담당관실 축소 등 전남도 조직개편 보류

모터스포츠담당관실 축소, 미래전략 담당관실 신설, 동물방역과 확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전남도의 조직 개편 추진이 보류됐다.

전남도의회 기획행정 위원회는 4일 상임위 회의에서 전남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안을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전남도는 10국, 49과, 204팀인 본청 조직을 10국, 50과, 211팀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개편안은 기구 정원규정의 과(課) 설치 기준(12명)에 미달하는 모터스포츠 담당관실을 팀 단위로 축소해 관광문화

체육국 스포츠산업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책기획관실에 있는 미래전략팀, 인구정책팀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빅데이터팀 등을 묶어 미래전략담당관실을 신설하는 방안도 담겼다. 또 조류인플루엔자 등 계절성을 벗어나 상시 방역체계 구축이 요구되는 축산과 산하 동물방역팀을 과로 확대하는 계획도 포함됐다.

전남도의회는 사안별 타당성 등 개편안을 심도 있게 검토한 뒤 다음 회기에 상정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공장·주유소·상가·교회·빌라·펜션·호텔

2017년 4월 26일 **한국전력공사** 공식발표!!

산업용 및 일반용 전기 태양광 설치시 전기요금 할인 제도!!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설치 가능하며 매달 내는 전기요금으로 해결됩니다

태양광을 이용하시면 60~80% 요금절약

연락주시면 방문하여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지구환경을 생각하는 **해가온에너지**

상담 전국대표 1588-1543
기술이사 010-3645-1479

광주광역시 북구 중흥로 166 해가온빌딩 1~5층

농막형 1,350~2,350만원
옵션 선택가능

6평 | 단층형
7,9평 | 복층형
적층, 확장형




하우스콤마
전남 함평군 동함평산단길 19-95

상담 | 062-953-2370
사업분야 | 이동주택(콤마), UBR 욕실, 절수 수도꼭지

www.housecomma.com